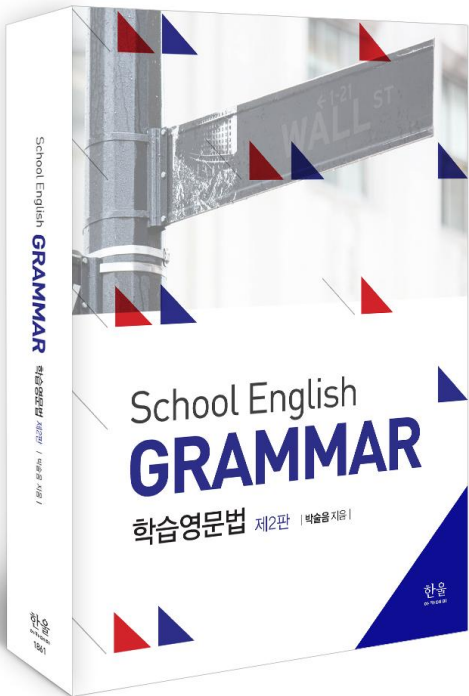


# School English Grammar

## 제2판

### 영어 표현을 가장 우리말답게 번역한 영문법 책



박술음 지음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2015년 12월 31일 발행 | 크라운판(173×246) | 양장  
760쪽 | 값 48,000원 | 어학  
ISBN 978-89-460-5861-3 93740

영어는 글로벌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터넷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가 되었고, 그 중요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영어 교육도 많이 강화되었고 그 성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숙달하려면 말하기, 듣기, 쓰기에서 그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한국어와 비교한 그 특질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 영어가 상륙한 지 130여 년이 되었지만 영문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평생의 연구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하여 남긴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에 일조하신 박술음 선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박술음 선생이 1981년 초판을 펴낸 『학습영문법 (School English Grammar)』의 제2판이다. 서론, 어형론, 통어론 제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었으며, 매우 풍부한 영어 예문을 다뤄 실용성을 높였다.

이 책은 영어학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 학생, 학자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영어 학습체계를 익힐 수 있도록 하며,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특질을 잘 살려 그 관계성에 맞게 영문법을 정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편집 신유미(031-955-0631, youmi@hanulbooks.co.kr)  
10881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031-955-0655(대표전화) | 031-955-0656(팩스)  
www.hanulplus.kr | blog.naver.com/hanulnew

##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특질을 잘 살려 영문법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법의 모든 것!

종래의 영어 교육에서는 술어 등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of’의 소유격 문제가 있다. ‘of(의)’는 반드시 소유격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를 속격(屬格)으로 처리했고, 그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of’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of’가 반드시 소유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entence’는 일반적으로 문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를 센텐스(sentence)로 썼다.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등의 완성된 형태의 글로 써야 하며, 구 형태로 문장의 뜻을 포괄하는 형태는 문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ood evening.”은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하나의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센텐스다. 구어체 중심의 말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센텐스이므로 문장으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센텐스로 두자는 것이다.

아울러 문어체를 문장체로, 구어체를 회화체로 바꾸었다. 과거에는 많은 영문법 책이 회화체(구어체)라 하더라도 문장체(문어체)로 볼 때 불충분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여 문어체로 표기했지만, 본 책에서는 문장체로는 서투러도 회화체로는 적절한 경우 회화체로 해석했다.

그 다음으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를 제1분사, 제2분사로 다루었다. 사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시간 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장의 시제 모양이 과거, 혹은 현재의 시제와 비슷하다고 해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를 구분한 것이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분사는 늘 현재의 입장에서 종결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에 종결된 것이나 현재에 종결된 것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있는 것처럼 오인해 받아들게 함으로써 혼란만 야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분사는 제1분사, 현재분사는 제2분사로 구분해서 가르쳐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가름한 것이다.

박슬음 선생은 한국어와 비교한 영어의 특질 중 대표적인 예로 사물어(thing word)인 가산어(countables)를 복수나 또는 관사가 붙은 단수로 처리해야 실제 말이 된다는 점과 질량어(mass word)인 불가산어(uncountables), 수(numbers)를 들었다.

영어는 대명사가 발달한 언어다. 영어에서는 문장에 한 번 나온 명사는 바로 대명사로 표기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되풀이한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말 뒤에 붙어 말과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데 반해, 영어에서 조사는 오직 구조적인 역할만 한다. 또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올 뿐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주어 다음에 술어 동사가 온다는 원칙에서는 두 언어가 같지만, 한국어의 주어는 문맥에 따라, 또는 경어적 표현에서 흔히 생략된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 각각의 특질을 잘 살려서 그 관계성에 맞게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영어의 표현을 가장 우리말답게 번역한 대영문학자의 권위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지은이

### 박술음

고(故) 박술음 선생(1902~1983)은 한국의 일제 강점기와 자주 독립, 그리고 6·25전쟁으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기였던 시절에 영어영문학자였다. 국민 대부분이 영어라는 언어를 왜 학문으로 배워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당시에 선생은 남다른 세계적인 안목으로 교육에 뜻이 있으시어 외국어, 특히 영어의 필요성과 학문적 실천을 선도하셨다. 1954년에는 한국 최초의 외국어 특수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설립 하도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회유하고, 대학 설립 자금 지원자를 설득해 외국어 학문의 절실함을 주창 하신 박술음 선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건학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아이콘이었다. 선생은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재 교육, 특히 외국어 학습을 부지런히 해서 세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늘 주장하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셨다.

물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영어를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토방위는 물론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여념이 없어 먼 앞날에 대한 갈망은 강했으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와 대책을 세워갈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때에 박술음 선생은 세계를 향한 교육이념을 내세우고 외국어 특수 대학을 출범시키고, 늘 “학업에 정진할 때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라,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3년간 학장(오늘날 총장에 해당)직을 맡으시면서 몸소 한국 영어 교육의 선구자로 명강의를 하였고, 최고의 대학 행정가로서 외국어 교육의 틀을 닦아 제도화하셨다. 1954년 이래 선생의 제자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대양 육대주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큰일을 해왔고, 지금도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제 10대국 선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실감해 2011년 기금을 모아 돌아가신 스승의 참뜻을 기리며 추모문집을 제작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모교에 선생의 추모 동상을 세우는 행사를 하였다. 이는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박술음 선생은 성년의 문턱에 들어선 시기 이전부터 팔순의 천수를 다하시기까지 오직 겨레와 학문을 위한 길에 몸과 마음을 바치셨다. 송도고보 3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심으로써 비롯된 겨레 사랑은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부장관이라는 어려운 일에 몰두하시기까지 한결같이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다. 상이군경을 위한 ‘원호법’을 마련하시고 유엔군전력강화를 위한 노무단을 조직하신 외에 유엔민사처를 비롯한 외국기관에서 자금과 물자를 장만하시어 전사에 시달린 국민생활의 인장을 이룩하신 일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크나큰 힘이였다.

독립운동으로 송도고보 중퇴라는 희생을 치르신 선생의 배움을 향한 소망은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난관을 이겨내심으로써 드높이 발돋움하시였다. 이어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영문과를 마치시고는 휘문고보의 교사와 교장으로 20여 년, 연희대학교의 교수와 교무처장으로 6년, 그리고 창립에 이바지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장(총장)으로 23년간을 봉직하시는 동안 이 나라 교육계에 새 이정표를 세우셨다.

현재는 과거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고인

이 된 박술음 선생의 저서를 다시 발행함으로써 세월의 그늘 속에 묻혀 잊혀져가는 선생의 영어교육의 발자취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그의 교육정신이 담겨 있는 지구촌 시대 한국인의 긍지를 살리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길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는 선생의 결곡한 용모와 단정한 자세에서 볼 수 있듯이 박술음 선생의 인품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히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 “양심의 평안 속에 울곧게 살다”가신 선생님은 “교사는 가도 교육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으로 사람을 기용하셨으며, “급사에게도 하대를 하는 법 없이 ‘평범(平凡) 속에 비범(非凡)’을 남기셨다.”

박술음 선생의 대부분의 저서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모태로서 192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약 50년간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교과서로 오랫동안 애용되었다. 영미 대가들의 걸작을 수렴하신 선생은 명구들을 추려 이를 몇 권의 단행본으로 내놓았는데, ‘*Readers’ English, Present English, Extract English*’가 그것이다. 선생은 이 자료들을 KBS 라디오 방송 교재로 직접 사용하셔서 약 10년간 적지 않은 청취율을 올리고 호평을 받았다.

선생의 마지막 저서인 영문법을 기초로 영어와 우리말 표현의 묘미를 잘 살려 쉽게 쓴 영어 학습서 『학습영문법(School English Grammar)』 제2판을 출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생의 인생 의지와 영어교육의 참 뜻, “평범 속에 비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높이 세우기 위함이다.

## 책의 구성

제2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제1부 서론(INTRODUCTION)

제1장 8품사(Eight Parts of Speech)

제2장 구와 절(Phrases and Clauses)

제3장 상당어(Equivalents)

제4장 문장(Sentences)

제5장 문장의 종류(Kinds of Sentences)

제2부 어형론(ACCIDENCE)

제1장 명사(Nouns)

제2장 대명사(Pronouns)

제5장 동사(Verbs)

제6장 준동사(Verbals)

제7장 부사(Adverbs)

제8장 전치사(Prepositions)

제9장 접속사(Conjunctions)

제10장 간투사(Interjections)

제3부 통어론(SYNTAX)

제1장 통어론의 윤곽(Outline of Syntax)

제2장 화법(Narration [Speech], 話法)

제3장 일치(Agreement, 一致)

제4장 어순(Word Order, 語順)

제5장 생략(Ellipsis)

제6장 센텐스의 전환(Transformation of Sentences, 轉換)

제7장 삽입어귀(Parentheses, 插入語句)

제8장 센텐스의 해부(Analyses of Sentences, 解剖)

연습문제 해답(Answers to Exercises)

찾아보기(Index)

1. 문법 용어(Grammatical Terms)
2. 중요 어귀(Some Words and Phrases)